

행복 더하는 교사 마음회복센터 '휴 프로그램'

평화교육연수원, 교사 집중치유프로그램 진행

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원장 송민영)은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교직원힐링센터에서 '교사 마음회복센터 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휴 프로그램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의 치유 및 교육력 회복을 통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숙박형 직무연수 형태로 실시하며, 병가·병휴직 중 교사를 포함해 참가 희망 교사 3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MBTI연구소 김재형 책임연구원의 심리학 교육을 시작으로 △상담전문가가 진행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집단상

담)' △열린사이버대학교 최병진 교수의 '나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음식치유)' △아카펠라그룹 '보이저'의 '겨울밤에 만나는 감성음악회(음악치유)' △'즐거움·사랑·성찰이 있는 교실만들기' 등 집중치유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송민영 원장은 "교직원의 마음건강은 개인의 권익분제를 넘어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아이들을 행복한 시민으로 이끄는 교직원이 집중치유과정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딕싯'

동화적 감성을 보드게임에 녹인다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놀아보자"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원평청소년문화의집(관장 이미경, 이하 문화의집)에서는 최근 일일특별프로그램으로 청소년취미활동 보드게임 '딕싯'을 진행했다.

초등 청소년 12명을 두 모둠으로

나눠 진행된 보드게임은 평소 보드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딕싯'의 규칙을 배우고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져 소통했다는 점에서 보드게임 체험의 의미를 찾

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보드게임 보조 진행자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윤아정(동일공고 2학년)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정서적으로 공허한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번 보드게임 체험은 감성과 창의성을 발견하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평문화의집에서는 12월 17일 크리스마스 가랜드 만들기과 23일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평택문화원, 유언주 총무팀장

'경기도문화인상' 수상

"언제라도 발 벗고 최선을"

평택문화원(원장 김은호) 유언주 총무팀장(사진 가운데)이 12월 8일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이 함께하는 제19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에서 경기도지사상인 '경기도문화인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2017년 제19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에 경기도 내 지방문화원 임직원과 문화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문화콘텐츠 연구와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연수는 경기도 지역의 문화, 예술사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한해를 뒤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마련된 자리이며, 특히 2017 경기도 지방문화원 어워드를 통해 경기도문화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를 시상했다.

경기도지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평택문화원 유언주 팀장은 지난해 2016 문화예술관광 유관기관 평택시장 표창을 받았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년 9개월간 평택문화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유 팀장은 총무팀장으로 평택문화원의 전반적인 총무업무 및 인력관리 등 평택문화원이 관리·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평택문화원 관계자는 "평소 유 팀장은 임직원과 유관기관 사이에서 소통과 우대의식이 뛰어나며, 평택문화원의 다양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애써왔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수상소감에서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평택문화원 임직원 모두가 목적사업에 충실했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발 벗고 최선을 다해 일 하겠다"고 말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경기도교육청 브리핑

각 분야 건설관련단체 대표, 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경기교육시설 건설 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2월 13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각 분야 건설관련단체 대표, 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16명이 '경기교육시설 건설 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시설 건설 분야 업무 관련자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반부패시스템 구축 및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협약 내용은 △투명한 건설 환경 조성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 확대 △건설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부패유발 요인의 사전 제거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시설 건설 등이다.

이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자가 속하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협약 당사자는 교육시설 건설 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향후 '경기교육 교육시설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운영해 협약의 이행·확산에 노력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관리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투명사회협약 IT팀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시설 건설 분야 협약 의제를 논의했으며,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사례로 배우는 공유재산 업무

14~15일,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에서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연수 내용은 공유재산의 이해와 소송수행 실무 강의, 공유재산 업무 사례의 공유 및 협의회 등이다.

공유재산 소송은 '국·공유 재산 소송 수행 실무'를 집필한 파주시청 이기용 소법부판관이 맡아, 그동안 파주시에서 진행한 다수의 공유재산 소송 사례를 비롯해 소송수행 실무,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공유재산 소송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상세히 소개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유재산 업무의 주요 현안, 공유재산 심의회, 관사 및 매점의 운영, 학교시설 개방,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등 업무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승구 재무담당관은 "이번 연수가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